

나주혁신도시 토지보상 본격 돌입

광주·전남 '상생도시' 조성 속도낸다

8일 나주혁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이 본격 시작되면서 혁신도시사업단(한국토지공사, 광주시도공사, 전남개발공사)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토지보상과 함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의 출발점인 기공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 등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시·도 상생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데다 11월 착공이 이뤄질 경우 제주, 김천, 진주 등에 이어 전국 4번째로 혁신도시 조성에 돌입하는 것이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단, 착공식 추진 박차=당초 혁신도시사업단은 지난 5~6월께 토지보상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살보상이 걱정, 축산폐업보상 등을 요구하며 지장물조사를 원천 봉쇄하면서 보상 일정이

제주·김천·진주 이어 내달 8일 착공식 지장물 보상 합의 안돼 막판 주민 절충

4~5개월 가량 늦춰졌다. 지장물조사 경우 수목에 대한 조사가 30%선 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보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주민들과의 절충 작업을 벌이는 한편 나주시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토지공사의 경우 11월8일로 예정된 기공식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의 실시계획승인이 오는 20일께로 예정된 만큼 기공식 행사장 공사를 위해선 조기 공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기공식 터파

기 공사 이후 행사장 건축에만 한 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조속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주민들과의 활발한 절충 작업을 통해 향후 사업추진에는 더이상 차질을 빚지 않도록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보상이 조정 및 이의제기 등 '촉각'=나주혁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8일부터 두 달간 진행된다. 3.3㎡(평)당 보상은 평균 15만2천원 수준으로, 혁신도시 전체의 토지보상 규모는 총 3천3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적별 단가는 자연녹지, 농경지, 임야 등 토지용도에 따라 차등 보상된다. 지장물 보상이 지 할 경우 총 보상금은 대략 5천억

원대로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사업단은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격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주민들은 수용재결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재결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춘식 나주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장장은 "나주는 수목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배나무로 구성된 만큼 영농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데도 사업단측이 원론적인 답변만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영농 및 지장물보상에 대한 협의만 마무리된다면 11월 착공에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레저·스포츠용품 싸게 사세요

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고객들이 가을 등산복을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8일부터 14일까지 '제1회 레저·스포츠 박람회'를 열고 등산 의류용품 특별기획전, 르까프 1~3만원 균일가대전, 스포츠 유명 브랜드대전을 통해 다양한 기획상품을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항공·해운사 하반기 취업문 열렸다

아시아나 200명·대한항공 200명 등

본격적인 하반기 취업시즌을 맞아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물류운송업체 채용도 줄을 잇고 있다. 8일 인크루트와 해당 업체들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0여명 규모의 하반기 대졸사원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물류운송 계열사로 아시아나항공·금호고속·한국복합물류 등이 오는 12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영업서비스·공항서비스·시설환경 부문에서, 한국복합물류는 국제물류·전산·영업부문에서, 금호고속은 경영관리·법무·환경·영업부문에서 각각 인력을 뽑는다.

대한항공은 오는 15일까지 일반·기술·전산직 등에서 신입사원 200여명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대졸 이상, 토의 750점 이상이며,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과 실무면접, 인적성검사, 외국어 구술 테스트, 임원면접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현대상선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께 30~4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한국공항공도 이달 말까 한자릿수의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진해운은 8일까지 대졸 신입사원 모집을 마감했으며,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1~2차 면접을 거쳐 두 자릿수 규모의 인원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아차 'HM' 이름 지어주세요

"기아차가 생산하는 'HM' 차량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기아차는 올연말 또는 내년 초 출시예정인 고급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HM'(프로젝트명)의 차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기아차가 제시한 HM의 후보 차명은 모하비(Mohave), 윈드리버(Windriver), 오펠리아(Opelia) 등 3개다.

8~25일 실시되는 이번 공모에는 기아차 인터넷 홈페이지(www.kia.co.kr)에서 '럭셔리 대형 SUV HM 차명선정 이벤트'로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3개 후보 차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기아차는 이벤트 결과 차명으로 선정된 후보명을 추천한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20명)을 증정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농지 간척사업 지연...사업비 3조 늘어

영산강·고흥·삼산 등 9곳 용도변경 등 신중 기해야

한국농촌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지조성 목적 간척사업의 예산이 영산강 유역 간척사업을 비롯한 전국의 계획된 간척사업 공사일정 지연으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8일 한국농촌공사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새만금·시화호·화옹·남포·이원·고흥·군내·삼산 등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9개 간척사업의 사업비는 인가 당시만해도 2조5천98억원에 불과했으나 현재 5조6천734억원으로 3조1천636억원 늘어난 상태다. 공사기간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4년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강기갑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농지 조성 간척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들 농업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엄격하고도 확실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준공된 농지 가운데 현재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 2천234만㎡에 이른다"면서 "가급적 당초 개발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국민연금 4년간 568억 잘못 지급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액수가 2004년 이후 5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2004~2007년 6

월 사이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된 금액은 568억200만원이며 이중 140억7천600만원이 회수되지 않았다. 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등 다른 기관의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경우가 2004~2007년 6월 사이 1만2천578건, 57억 1천338만원

에 이르렀다.

또 사망·재혼 등으로 연금을 받던 권리가 없어졌는데도 공단이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같은 기간 총 8천962건, 38억 2천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입자가 허위로 청구했으나 이를 공단이 확인하지 못해 일시금이 지급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연남스

이구택 포스코 회장 국제철강협회장 선임

이구택(사진) 포스코 회장이 국제철강협회(IISI·International Iron & Steel Institute)회장에 피선됐다. 국제철강협회는 7일 독일 베를린에서 제4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구택 포스코 회장을 제31대 IISI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IISI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에 선출된 이래 2005년 부회장으로 선임됐고 이번에 회장을 맡게 됐다. 이 회장은 전 세계 철강업계 대표로 선임된 것은 IISI가 집행위원회와 부회장 제임시절 보여준 이회장의 리더십과 세계 철강산업에 대한 비전 제



시 등 글로벌 철강인으로서의 능력과 함께 포스코 CEO로서의 뛰어난 경영성과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아르헨티나 테크니그룹의 파울로 로카 회장이 새롭게 회장단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구택회장과 함께 전임 IISI회장이었던US스틸의 존 서머 회장, 아르셀로 미탈의 라시미 미탈사장이 회장단을 구성하게 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중소중앙회 지역본부 '재무회계' 과정 개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는 오는 10~12일 광주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경영분석 과정'을 개설, 교육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내용은 ▲재무회계의 기본개념 이해 ▲재무제표 기본요소 인식 및 작성 실습 실무 ▲원가의 기초개념과 원가계산의 종류 ▲주요 계정의 과목별 회계처리 실무 ▲기업의 가치 평가 등이다. 교육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062)955-9966.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mpeung Diner's Country Club. Text: "세계적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Includes a large image of a golf course and a small inset image of a clubhouse building.